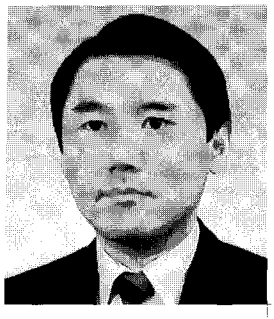
"고에너지가격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전략"

곽일천〈에너지경제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중 한사람이 쓴 자서전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기업은 영원한가?"라는 질문에 그는 기업의 수명은 인간의 그것보다도 훨씬 짧고 덧없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도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집약적 구조로, 경공업에서 중공업중심으로, 소재산업에서 가공조립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거나 생겨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기업의 앞날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기업의 끊임없는 적응과 변신은 무엇보다도 그 기업 경영진의 미래지향적 시각과 시대를 앞지르는 확약한 통찰력, 그리고 왕성한 창조적의욕이 필수적일 것이다.

90년대를 맞이한 우리 기업경영여건을 몇가지로 집약하여 표현하면 고에너지가격, 개방압력의 극대및 지구환경 규제강화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는 중요한 경제적자원으로 생산활동의 필수불가결한 투입요소일뿐 아니라 기타부문에서는 유용한 소비재이므로 에너지의 가격변동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가격의 변동이 경제여건에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요소는 경제성장율, 대미달러환율, 국제금리등으로 어느하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에너지가격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석유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석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절반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석유가격의 변동은 타에너지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에너지의 소비는 연간 2%정도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0%에 육박하는 높은 신장율을 보여 우리경제의 발전단계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에너지집약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과 경쟁국인 대만보다도 훨씬높아 똑같은 에너지의 소비에서 훨씬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원단위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지구온난화의 문제해결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에 덧붙여 생각해 볼때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에너지의 합리적이용이란 과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급격한 에너지소비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그 주요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를 소득과 가격의 함수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격의 효과가 80년대로 들어서면서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제 2 차 석유파동이후 에너지이용기술의 향상등을 비롯한 에너지절약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70년대의 과도한 소비증가가 80년대에 비교적 안정되었던 것을 볼때 에너지가격의 효과는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우려할 정도로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수송부문에너지증가와 전력의 소비증가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유가와 전력요금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출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내물가억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정책은 소비를 부추기며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혹독한 비판이 무성하다.

지난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국제석유시장의 충격여파 및 현재 진행중인 걸프전쟁등으로 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이번의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인상폭은 과히 높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 이유로는 1,2차때와 달리 세계전체의 석유의존도가 낮아졌다거나 또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공급초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등으로 유가는 약 20불에서 25불선으로 안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국내기준 유가가 20불미만으로 돼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때도 국내유가인상요인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유가가 1불 상승하면 국내유가인상요인은 5%정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석유사업기금이나 국내 보유분을 방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인상요인을 완화시킬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기업이 관심을 가지게되는 국내에너지의 가격은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수요관리측면에서 볼때 인위적인 정부의 통제로 낮게 책정된 에너지가격은 유럽, 일본등의 수준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전반적인 세계유가가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아래 국내의 가격또한 인상되리라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지구환경규제의 조속한 현실화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에 환경비용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의 가격은 인상이 되리라고 보여진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인상이 있을 것이냐?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이 있으리라는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고에너지가격시대의 도래가 불가피하다고 볼때 국가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에너지원단위의 저하를 꾀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서비스를 얻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에너지효율의 향상은 기술적인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후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기업은 고에너지가격시대를 맞이하여 저에너지소비형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제적 여건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경영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한 기업이 어떻게 탈바꿈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업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하여도 크게 지나침이 없다하겠다.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과 이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 효과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경제성장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